

# 여수엑스포장 거점형 국제마리나항 지정

### 방파제·배후부지·교통 등 인프라 갖춰 '최적지'

### 박람회장 사후활용 탄력...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여수 엑스포장이 전역 국비로 추진되는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26일 "여수 엑스포장이 지난 21일 국토해양부가 최종

선정한 전국 6개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 엑스포장이 방파제와 배후부

지, 관광·교통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사업추진 적합지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여수지역의 마리나항만 입지 선정(소호, 엑스포장)을 위해 국토부 항만지역발전과장 및 KMI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여수 현지를 직접 방문해 소호지구와 박람회장을 비교 검토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해양수산부가 발주할 기본조사설계 용역에서 태풍 내습시 대비책과 항로확보 등 지역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기재부, 국토해양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며 "이에 따라 박람회장 사후활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엔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6 곳은 남해안과 동해안, 서해안에서 각 2곳씩으로, 여수를 비롯해 경남 창원 명동, 경북 울진 후포, 울산 울주 진하, 인천 옹진 덕적도, 전북 군산 교군산 등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신대지구 공공성 약화 시행사 이익만 극대화”

### 순천시의회, 개발계획 변경 관련 감사 의뢰·법적 고발 검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해룡산단과 울촌산단의 배후도시로 개발중인 순천 신대지구가 공공성이 약화된 대신 시행사의 이익은 극대화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있다.

2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대지구 개발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는지 조사를 위해 신대배후단지 조사특위를 구성, 지난 1월25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6개월 시한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발표한 1차 조사결과 개발 시행사가 지난 2007년 8월 순천시에서 J건설사 자회사인 (주)에코벨리로 넘어가면서 상업부지가 늘어나고 공공부지가 줄어드는 등 공공성이 크게 약화되고 시행사의 이익은 극대화됐다.

시행사 변경 후 지난해 말까지 개발계획이 9차례나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단지 수용인구도 2만1000명에서 3만명으로 상향 조정돼 아파트 공급 물량도 함께 늘어났다. 에코벨리 모회사로 시공을 맡은 J건설사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3618기나 증가했

다는 것이다. 상업시설용지도 당초 5만409㎡에서 6만5489㎡로 늘고 보행자도로, 공공용지 등 공공목적 부지는 줄어들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유보지 2만7000㎡는 조성 후 순천시에 무상 양도되기로 했으나 초등학교 부지도 용도가 바뀌고 유상용지로 돌변했다. 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3만5232㎡의 부지도 전량 단독주택용지로 변경됐다.

특위는 부지 용도가 바뀌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시행사에 돌아가는 특혜구도가 되는 등 당초 개발목적에 상충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관련 후속 조치와 함께 내달 2일부터 2차 조사가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특위 김석 위원은 "관련 후속 조치로 9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한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남도 의회에 특위원성을 촉구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의뢰와 함께 법적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순천시 첫 모내기

전국 첫 모내기가 26일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백인기(46)씨의 논 0.4ha에서 조충훈 순천시장과 농업인 순천농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룡면 구삼마을은 1959년 첫 조기재배를 시작해 현재는 89농가가 조기 재배를 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여수유람선 '거북선호' 내달부터 재운항

동절기 중단됐던 여수유람선 '거북선호'가 다음달 1일부터 재운항된다. '여수 거북선호'는 매일 오후 7시30분 오토동 음악분수대 앞에서 출발해 박람회장 내 빅오~거북선대교~이

순관광장~장군도~돌산대교를 1시간20분정도 왕복하는 유람선이다. 동절기를 제외한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항하며, 파스텔 톤의 LED조명과 레이저를 활용한 특색 있

는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다. 요금은 어른 1만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7500원이다.

특히 여수관광할인쿠폰 소지자는 10% 할인되며, 할인쿠폰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쿠폰번호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순천시 '마을기업박람회'

**9월 6일~8일, 제품 홍보·경영정보 교류**

안정행정부는 25일 “2013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이하 박람회) 개최 지역을 순천시, 대전광역시, 경기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박람회는 상반기에 지역단위로 대전광역시, 경기도에서 개최하고 하반기에 전국 단위로 순천시에서 개최한다. 전국 단위 박람회는 오는 9월6일(금)부터 8일(일)까지 3일 동안 순천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내 잔디공원'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 마을기업 간 경영노하우 등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를 넓혀나가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박람회 기간에는 마을기업 전시관 외에 마을기업 정책홍보관, 마을기업 컨설팅관, 마을기업 체험관 등이 운영되며 마을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마을기업인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세미나도 진행될 계획이다. 순천에서 열리는 전국단위 박람회에는 17개 시도 총 200여개 마을기업이 참여하여 각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마을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통하여 마을기업을 소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고흥 강산지구 농촌용수 개발 추진

### 농어촌공, 192억 투입 양수장·용수로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는 26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산지구는 농업용수 염분농도가 0.5~0.7%(최고치)로 모 고사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간척지로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고흥지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지역국회의원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총사업비 1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강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신진저수지를 보강하고 양수장 1개소 및 용수로 10km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고흥군 잠암면 일대 226ha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져 향후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고창군-국립나주병원 공동협력 맺어

### 주민 정신건강 증진 '삶의 질' 높인다

고창군은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나주병원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강수 고창군수, 정효성 국립나주병원장, 박래환 군의회 의장, 이정택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보건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상호 시설 및 자원 이용으로 군민 정서안정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 보건소에 서 운영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

계, 정신보건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군민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각종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은 고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창군은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09년 3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143명의 회원이 등록해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전북

# 전북도내 소비자 '불만 품목'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2만1405건 분석해보니

전북 도내 소비자들은 지난해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관련 제품에 가장 많은 불만을 표출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거주 소비자자들이 지난해 물품 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 건수는 총 2만140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1년)도의 2만1785건보다는 1.7%(380건)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2만건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청구 품목을 물품과 서비스로 나눈다면 물품 관련 상담(55.2%)이, 서비스 관련상담(44.8%)보다 10.4포인트 많았다. 이 중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2526건(1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 2338건(10.9%), '금융' 1937건(9.0%), '정보통신기기' 1615건(7.5%), '차량 및 승용물품' 1565건(7.3%), '식료·기호품' 1169건(5.5%) 등의 순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등산복 등 의류 용품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불만이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비자 스스로 상품 구매 이전에 서비스나 반품 등의 규정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고창군-청보리밭 축제위, 지역발전 업무 협약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도안 스남)은 지난 25일 복지관 회의실에서 고창 청보리밭 축제위원회(위원장 진영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마련했으며, 프로그램 개발, 상호교류, 문화봉사 및 후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청보리밭, 그 이야기 속으로'를 주제로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음면 학원농원 보리밭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남원시,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2억7천만원 지원

남원시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28가구에 대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남원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인 '여명건축'에 사업을 위탁해 구조위험,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구당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원시는 지난해에도 사업비 2억5400만원을 투입, 134가구 저소득층의 주택을 개보수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정읍시,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가 2013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83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역 내 평생학습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사업 심사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830만원을 더한 총 1660만원을 투입해 정읍시노인복지관과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 2개 기관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지도자 양성과정'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한 '한방차 제조기술과정'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도교육청, 필리핀 초·중·고에 컴퓨터기 등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필리핀 카비테주(州)의 공립 초·중·고에 컴퓨터와 관련 기기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카비테주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제품 컴퓨터(모니터 포함) 150대와 컴퓨터실 2실 규모의 구축을 위한 기자재(프로젝터 2대, TV 2대, 복합기 4대) 등 1

억7000만원 어치의 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컴퓨터는 현지에서 에프티비주(州)의 공립 초·중·고에 컴퓨터와 관련 기기를 지원한다. 지원된 컴퓨터는 현지 학교와 정보통신기술(ICT)교육센터에 설치돼 학생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실습에 사용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남원 광지천 배롱나무 가꾸기

남원시 향교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26일 오전 아름답고 깨끗한 광지천을 만들기 위해 배롱나무 가꾸기에 나섰다. 이 배롱나무는 지난 2005년에 향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식재해 놓은 것으로, 모두 361그루가 의총교에서 축전교에 이르는 1.5km 구간에 심어져 있다.

남원시 향교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26일 오전 아름답고 깨끗한 광지천을 만들기 위해 배롱나무 가꾸기에 나섰다. 이 배롱나무는 지난 2005년에 향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식재해 놓은 것으로, 모두 361그루가 의총교에서 축전교에 이르는 1.5km 구간에 심어져 있다. (남원시 제공)

### 정읍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유실수 등 판매

정읍산림조합은 봄철을 맞아 최근 조합청사 숲에 900㎡의 나무시장을 조성해 개장했다. 나무시장에서는 나무 심기 적기를 맞아 조합원과 인근 조합에서 생산한 유실수,조경수,산림수종 및 초화류 등 품질좋은 나무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조합은 질 좋은 묘목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모목 고르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까지 지도하고 있어 구매농가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에너지 절약 녹색아파트

### 도내 2만5천여가구 동참

전북도내 46개 아파트 단지 내 2만5655가구가 에너지 10% 절이기 운동 등 녹색아파트 만들기에 동참한다.

도는 25일 중회의실에서 이들 아파트 단지 주민 대표와 대학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전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아파트 만들기 협약식'을

했다. 아파트 관계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숙지하고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기로 약속하는 등 가정세대 10대 녹색생활수칙을 실천하기로 했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주민을 상대로 온실가스 진단과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을 하고 10월께 전기에너지 감축율과 탄소포인트제 참여, 그린터치 보급 등 5개 항목을 평가, 우수아파트 6곳에 300만~1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